



조간 제 818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음력 8월 22일)

무안 국가산단 지정 절차 1년 이상 앞당긴다

SK하닉 요청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정부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발표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1년 이상 단축한다.

반도체 팹을 대상으로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수도 허용해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분회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1년 이상 단축해 약 7615억원 규모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산단 개발계획 및 개발 실시

계획 수립 절차를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한다. 또 산단 승인에 필요한 관련분야 협의 절차도 동시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이견 시 통합조정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347만㎡(105만평)를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168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나타냈다. 산업시설용지 대비 입주 수요는 154.2%, 비용 대비 편익(B/C)은 1.3으로 조사돼 사업성과 기업수요도 일정 부분 확보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의 무역여서 종합건설사가 반도체 팹(Fab)공사를 총괄할 수 없었다.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미흡과 공정 지연, 시공사 간 책임 분쟁 등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이 전기·통신공

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팹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반년 기술검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서 제외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로봇의 3대 취약부품인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개발에 133억원을 지원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추억의 충장축제’로 놀러 오세요’ 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 금남로 빛의음성 일원에 조성된 충장축제 테마의 거리에서 일찍 동구청장과 구제길 축제위원장 등 구청 관계자들이 제23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성공 개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추억의 충장축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5·18민주광장, 예술의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은 ‘용수’… 전남 물관리 ‘취약’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용수 확보와 함께 기존 생활·농업용수 보호, 노후관 교체, 공급망 이중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목포대학교 행정·언론미디어학부 행정학전공 연구팀은 최근 발간한 ‘전남 물관리 취약성 진단’에서 기후와 저수율, 취수·정수시설, 관로 노후도, 수도재정, 산업용수 공급구조를 하나의 분석 틀에 놓고 전남 물관리의 취약성을 진단했다.

연구팀은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보내는 도수관을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했다.

지난 2024년 전남의 도수관 경년관 비율은 73.0%로 전국 평균 40.7%보다 32.3%p 높았고,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부식에 취약한 비내식성 도수관 비율도 59.8%로 전국 평균 11.0%를 크게 웃돌았으며, 송수관·배

노후관 교체·신규 용수 확보 공급망 이중화 등 개선 시급 목포대, ‘정책 자료집’ 발간

수관·급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취약성이 도수관 구간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노후화에 비해 교체 속도는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2020~2024년 연평균 관로 교체율은 0.415%로, 이 속도가 계속될 경우 전체 관로를 한 번 교체하는 데만 약 241년이 걸리는 수준이다.

기후와 저수 여건에서도 연도별 변동성이 확인. 2008~2024년 전남의 장기평균 폭염일 수는 약 10.4일이었지만 2024년에는 33.1일까지 늘었으며, 강수량은 2022년 846mm에서 2023년 1807mm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01~2023년 전남의 평균 저수율은 53.4%였으나 최저

저수율은 39.2%까지 내려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구조에서도 집중 위험이 확인됐다. 계획된 댐 수월 76만/일 가운데 주암댐 계열이 절반이 넘는 59.2% (45만/일) 차지해 나주댐이나 장흥댐의 비중과 큰 차이를 보여 산업수요 대응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원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HHH는 526%로 나타났다.

또 주암댐 계열의 공급 중단, 다른 공급계열의 정비, 2022년 수준의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공급 부족률이 최대 94.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목포대 연구팀은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노후 도수관 개량을 신규 관로 건설과 분리된 사업으로 추진해 취약 구간부터 집중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면에 계속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경제성장수석 해남출신 문신학

대통령 평화외교특보에 송영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하 실장에 대해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현안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전 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내부 승진’ 형식으로 정책 사

령탑 공백 상황이 해소돼 청와대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전주 출신 신임 하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 경제 참모로 활동해 왔다.

하 실장의 승진으로 비계된 경제성장수석 자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문 신임 수석은 해남 출신으로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차관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



별보좌관으로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송 특보는 고흥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6선 의원이고, 김 특보는 육군 대장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경기도도시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